

테마칼럼

경제포럼

문화포럼

인문포럼

정론·문화·대상

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의 부활



김현언

“ 줄줄이 상가들만 붙어 있는 낭만 없는 쇼핑타운 들은 쇠퇴하기 마련이고 계속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알맞은 자연과, 문화 환경들이 공존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은식

90주년 3.1절 기념일을 보냈다. 일제강점기의 쓰라린 아픔과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한 참상을 온몸으로 경험한 3·1 운동 1세대 어르신들이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2·3·4세로 이어져 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구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과 비전을 가진 세계인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3·1 청소년 독립 만세'가 필요하다.

산하는 원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 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예방비용과 평가비용과 실패비용을 말한다.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이라면 생산된 제품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은 10이다. 그러나 불량 제품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외부로 빠져나간 후에 처리하러 할 비용은 100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IBM과 같은 세계적 기업을 통해 현장에서 입증되었다. 사람을 이러한 비유로 예를 드는 것

청소년 독립만세!

유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과 영·유아들을 위한 노력은 정부나 각 자치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투자나 노력은 너무나 열악하다. 충장로와 금남로는 광주 청소년들의 중심 거리가 되고 있다.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거리를 가득히 메운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상권들은 넘쳐나지만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건강하게 쏟아내고 숨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

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환하는 바가 있다. 청소년은 예방비용과 평가비용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이 소중한 시기에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실패비용은 공장의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온다. 광주를 문화수도라고 홍보한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흡입력이 가장 큰 그야말로 문화 주도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들이나 정책의 반영이나 예산의 계획은 어떠한지 몹시 궁금하다. 문화수도 광주가 3·1절 100주년에 도청 분수대에서 3·1 민족의 정신과 광주의 정신을 품고 세계인으로 자라가는 청소년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광주서현교회 목사>

에너지 소비 줄이는 '쿨비즈' '웜비즈' 캠페인 펼쳐자

지금쯤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한겨울이었던 한 달 전쯤 일이다. TV에서 방송 출연자가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 놀았다. 이 한겨울에 그렇게 입고 생활하려면 실내온도가 적어도 26~28도 이상 돼야 하는데 그 정도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난방을 한 것일까 싶었다. 일본 역시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기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량이 우리와 유사한데 그 일본에서는 한여름에 환경청 주도로 '쿨비즈' 캠페인이라는 것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는 네티즌을 매는 정장차림이 더위를 유발하고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키자 캐주얼 차림으로 출근해서 일하자는 캠페인이었다. 그 다음으로 '웜비즈' 캠페인이라는 걸 개했다. 웜비즈 캠페인은 사무실 등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게 하는 대신 털옷이나 내의, 카디건, 조끼 등을 덧붙여 입고 일해 난방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이게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확산돼 의류시장에는 웜비즈 룩(Warm-biz look)이 관심을 끌고 산업유발 효과까지 얻었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웜비즈' 캠페인을 펼쳐봤으면 한다. ▲이성열·전남 나주시 산정동

지 소비를 가중시키자 캐주얼 차림으로 출근해서 일하자는 캠페인이었다. 그 다음으로 '웜비즈' 캠페인이라는 걸 개했다. 웜비즈 캠페인은 사무실 등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게 하는 대신 털옷이나 내의, 카디건, 조끼 등을 덧붙여 입고 일해 난방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이게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확산돼 의류시장에는 웜비즈 룩(Warm-biz look)이 관심을 끌고 산업유발 효과까지 얻었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웜비즈' 캠페인을 펼쳐봤으면 한다. ▲이성열·전남 나주시 산정동

기고



조남수

자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 한파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환율과 주식 등 금융시장의 혼란에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혼란과 격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얘기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아시아문화의 허브로서 재도약하는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다. 주인의식과 주인의 역할을 상실한다면 세계의 주역은 커녕 생계의 공과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렸고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면서 문화도시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광주의 교육 열기는 그 어느 도시보다 높고 교육의 도시로도 내세울 만하다. 여기에 광주가 지닌 민주, 인권, 평화의 이미지는 국가, 민

새로운 광주 주역이 되자

족,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송고회 화합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조화롭게 결합한다면 그 득(得)이 실(失)보다 적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손님의식이 아닌 주인의식이 있다. 주인의식과 주인의 역할은 단순한 긍정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관심은 허(虛)와 실(實)을 가릴 것이며, 참여는 허를 실로 바꿀 것이다. 미래의 주역인 세계의 대학생들을 광주로 초대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경험하게한다면, 그 유형무형의 자산은 자로 재지 않아도 무궁할 것이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기원이야말로 우리 경기불황 속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농업의 재발견' 제례·문화 행사 되살리자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해서 농사가 차질이 심하다고 한다. 첨단 과학시대에 약간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다.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은 궁궐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단을 두고, 지방의 관아에도 서쪽에 사직단을 설치하여 임금의 명에 따라 제례를 봉행했다. 사직제와 함께 선농제는 나라의 농사가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임금이 친히 하늘의 신과 선대 왕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게 일제에 의해 말살되어 버려 지금까지 그 대가 끊겨버렸다. 물론 이런 제사를 지낸다 하여 농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첨단 과학시대에 무슨 농사가 있어서 풍흉을 점지할까마는 우리가 사치제와 선농제를 되살리고자함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보자는 데에 있다. 우리 스스로 민족의 일과 자존이 살아있던 문화 행사를 다시금 되살리고 그것을 계기로 국민이 농업과 농촌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도록 하는 마음을 고취시켜 보자. 해마다 봄철이나 늦겨울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 등이 주관하는 선농제 행사를 할 것을 건의 드리는 바이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시설

농업보조금 개편 농민 의견 수렴돼야

농업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습이 예고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내년 말까지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보조금을 폐지·축소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식 농업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보조금 개편은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올해 농식품부의 총 예산 14조5천억원 가운데 약 26%인 3조8천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 3조8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개편 문제는 새로운 화두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총

130조원 가까운 농업 지원금을 퍼부었으나 농업은 농업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망만 든 것이 좋은 예다. 특히 농업보조금은 번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가짜 농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해 직불금 사태는 그런 실태를 확인시켜 주었다. 농업보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 지원금이 폐지되면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해도 시장 개방의 직격탄을 맞은 농업과 농민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되 신중해야 한다.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 장관의 말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농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사설학원 성범죄 무방비, 손놓고 있을 건가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부 학원과 보육시설에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사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만약 피해학생이 사실을 감추거나 고소를 취한다면 성폭력 가해자인 강사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생각만해도 아찔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학원장이 강의실에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당시 12세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사설 학

원이나 교습소 강사들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및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 최종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유망무실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사교육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에 대한 경력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집중돼 성범죄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사교육 현장의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모든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현재 복지부에만 한정돼 있는 점검·관리 권한을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위임해야 한다. 누대의 탈을 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0년 벨기에 F1(포뮬러 원) 그랑프리 11살의 슈마허는 당대 최고 스타 아이톤 세나(Ayrton Senna, 1960~1994)의 폭풍 같은 질주에 매료돼 레이서의 꿈을 키운다. 장차 F1의 황제가 될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미하엘 슈마허(Michael Schumacher, 1969년 1월 3일 ~ ). 그는 F1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경신했고, 7번이나 챔피언우승을 달성했다. 2006년을 끝으로 F1에서 은퇴했지만 그는 아직도 전설로 존경받고 있다. 그의 레이스는 침착함과 집념 그 자체다. 시속 300km가 넘는 질주 속에서도 때로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또 팽팽한 긴장을 조곤하게 풀어내는 마에스트로로 F1 팬들을 열광시켰다. 그는 샴페인·시가로 상징되는 한라산의 호사 취미 같았던 자동차 경주를 기술·정신·체력의 스포츠로 바꿔 놓았다. 그의 명성과 더불어 F1은 세계 최정상 스포츠 이벤트가 되었다. 정부의 입장변화로 전남도 F1대회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영암군 삼호읍은 들에 들어서는 F1 경주장의 건설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이면 완공되고 10월이면 실제 경주를 보게 될 것이다. 열렬 F1 마니아들의 피를 끓게 할 날이 머지않았다. 우리나라 F1 팬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10대·20대를 중심으로 상가 가장 많은 기록을 경신했고, 7번이나 챔피언우승을 달성했다. 2006년을 끝으로 F1에서 은퇴했지만 그는 아직도 전설로 존경받고 있다. 그의 레이스는 침착함과 집념 그 자체다. 시속 300km가 넘는 질주 속에서도 때로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또 팽팽한 긴장을 조곤하게 풀어내는 마에스트로로 F1 팬들을 열광시켰다. 그는 샴페인·시가로 상징되는 한라산의 호사 취미 같았던 자동차 경주를 기술·정신·체력의 스포츠로 바꿔 놓았다. 그의 명성과 더불어 F1은 세계 최정상 스포츠 이벤트가 되었다. 정부의 입장변화로 전남도 F1대회

슈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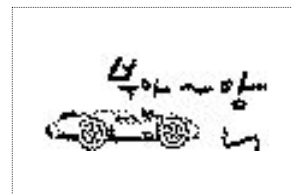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